

# 돈봉투까지 등장 6·1지방선거 ‘불법 난무’

### 담양·곡성·보성 금품살포 의혹 강력 수사 투표 앞둔 경합 선거지 불법 난무 예상 ‘감시 강화’

풀 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봉투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선관위 등은 감시를 강화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제공한 운동원 등은 구속 등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선거 후 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9일 유권자에게 뿌리기 위한 현금봉투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매수목적 금품운반)로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

으로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615만원,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현금은 유권자들에게 뿌리기 위해 자신이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수후보와의 연관성, 실제로 현금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곡성에서도 군수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유권자를 조사했으며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전남 보성지역에서도 모 정당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가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등은 경합지역의 경우 투표를 앞두고 돈이 뿌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선관위는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음식·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유권자가 도시에 비해 적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뿌려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에 비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고발비율이 10%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제공한 후보 또는 운동원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기자

# 김영주 씨 “5·18 숨은 주역 찾길” 옛 전남도청 항공사진 기증자, 촬영 중 헬기사격도 목격



옛 전남도청 항공사진 기증한 사진 기사 김영주씨. /5·18기념재단 제공

“열흘 간의 항쟁 동안 읍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했던 조연들도 반드시 조명되길 바랍니다.”

김영주(77)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 촬영한 옛 전남도청의 항공 사진을 5·18기념재단에 기증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5·18재단에 항쟁 직후인 1980년 6월 초 촬영한 옛 전남도청 항공 사진 필름 원본, 1993년 전일빌딩에서 촬영한 옛 전남도청 정면 사진 필름 원본 등을 기증했다.

그가 기증한 사진들은 지금껏 세상에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옛 전남도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여

겨진다. 특히 항공 사진은 1980년 5월 27일 계엄사의 상무총장직전 당시 옛 전남도청에 계엄군들이 진입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씨는 28세였던 1973년부터 전남도청 소속 사진 촬영 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5·18 항쟁이 끝난 1980년 5월 27일 부임한 당시 김종호 전남도지사의 지시로 항공 사진을 촬영했다.

5·18 직후 뒤늦게나마 광주·전남 지역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하는 도정 홍보 자료에 쓰일 사진이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소방헬기를 타고 같은 해 6월 초 옛 전남도청 일원, 전남 여수·순천 산업단지 등을 촬영했다.

그는 5·18 당시에도 옛 전남도청에 출근하며 시민들의 치열했던 열흘 간의 항쟁을 생생히 지켜본 관찰자이기도 하다. 계엄군의 금남로 집단 발표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직접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항공 사진 기증 취지를 5·18 당시 활약한 알려지지 않은 숨은 조연들을 조명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은 소시민들의 행적이 반드시 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 ‘오월 사형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별세



### 향년 78세...당시 예비검속으로 2년 여 옥고 특별 사면 후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앞장’

5·18민주화운동 직전 예비검속으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 받았던 ‘오월의 사형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29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정 이사장이 이날 오전 광주 모처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 이사장은 1964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1965년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다 구속·제적당했다. 이후 사회 생활을 하다 37세였던 1980년 복학했으나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예비검속돼, 신군부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내란수와 혐의를 뒤집어졌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군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2년 12월에서야 성탄절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으며, 5·18 진실 규명을 비롯한 사회 운동에 헌신했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는

신군부의 고문 수사가 사실이라고 폭로했고, 1995년 검찰의 5·18 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맞서 수사결과를 검증하며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의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5·18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대책위 공동의장, 광주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제14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돼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42주년 5·18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최근까지 항쟁 이후 남겨진 자의 소명을 다했다. /김용범 기자

#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광주시, 8월말까지 감시

광주시는 집중호우 등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집중호우가 있는 장마철에는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7~9월에는 폐기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출사업장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등 피해 발생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점검과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자

# 광주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6일 북부 통증과 몸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광주 북구의 유전자 검사실 실시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환자

로 확인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치명률(18.5%)에 비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올해 들어 순천과 광주에서 각 1명 등

전국적으로 1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강원도에서 텃밭작업을 한 후 확진된 60대 여성이 숨졌다.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4~11월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무덤가, 잡목림, 초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종 분포와 병원체 보유 양상을 조사하는 등 진드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환자 발생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중배 기자

# 북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내달 3일까지 행정 보조·환경 정비 등 133명 모집

북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다음달 3일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13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일자리는 행정 보조, 환경정비, 체육시설 관리, 코로나19 예방 지원 등 총 59개 사업으로 이뤄

진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계약체결과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 등을 겪은 사람이다.

근로조건은 주 15~40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권형안 기자

# 순천경찰, 일용직 외국인 절도 피의자들 ‘검거’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소재 A 택배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휴대전화 절취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순천시 A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최신 핸드폰을 입고있던 조기와 바

지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핸드폰 14대를 절취했다. 순천경찰은 CCTV분석 등 증거자료 확보 후 검거한 뒤 야산에 밀봉해 숨겨놓은 피해품을 회수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